

행위소 모델을 기저로 춘향전과 스피노프된  
방자전의 캐릭터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s of Chunhyang and Spin-Off Work  
The Servant Based on Modele Actantiel

주저자

민 신 기 Min, Shin-ki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교수 | Professor of Baekseok University

skmin@bu.ac.kr

투고일	2018.11.30	심사일	2019.04.27	게재확정일	2019.04.27
-----	------------	-----	------------	-------	------------

이 논문은 2019년도 백석대학교 대학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www.kci.go.kr

## 목 차

### 1. 서 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대상 및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그레마스의 행동자(행위소) 모델
- 2.2. 롤랑바르트의 신화론

### 3. 분석

- 3.1.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 3.1.1. 주동자 : 성춘향
  - 3.1.2. 대상자 : 이몽룡
  - 3.1.3. 주변자 : 방자
- 3.2.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
  - 3.2.1. 주동자 : 방자
  - 3.2.2. 대상자 : 성춘향
  - 3.2.3. 주변자 : 이몽룡

### 4. 결 론

### 참고문헌

#### Keyword

서술구조, 캐릭터, 롤랑바르트의 신화  
Narrative structure, Character, Roland Barth's  
Mytholog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tructure and relationship of two works by using GRAMAS' Modele Actantiel, to clarify the meaning of each work based on the results and finally to compare the differences Focusing on Characters of Chunhyang and The Servant. First, as a result of substituting into Modele Actantiel 'lack' of the subject was common. Although the recipients of the two works were different, their passion for love was almost equal. The result of the analysis by comparison of the next figures shows that if the surname of Chunhyang as a leader of Chunhyang means 'Love' which only serves one husband, the slave husband of the servant implies the meaning of 'human being' Mongryong of Chunhyang as a target showed the typical of his son and he had the meaning of 'Conscience' On the other hand, Mongryong in The Servant means purely in appearance but inside is a 'success' It was contained. Lastly, when I look around, the guard in Chunhyang is a general servant and the dare implies the 'faithfulness', which is hard to imagine, against the will of the superiors, but the guard in The Servant loves charm It contains the meaning of 'will' that does not spare its own body.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영화 춘향전과 방자전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활용하여 두 작품의 핵심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작품 캐릭터들의 함의와 신화를 밝힌 후 최종적으로 이들 상호 간의 대응을 통해 차이점을 알아 보는 시도이다. 먼저 이 작품들의 캐릭터들을 행위소 모델에 대입한 결과 공히 주체의 결핍 요소는 '사랑'이었다. 비록 두 작품의 수신자는 다르지만 사랑에 대한 열정은 거의 동등하였다. 인물들의 대응을 통한 신화의 분석 결과는 원전의 주동자로서 성춘향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듯 일부종사를 따르는 '사랑' 신화를 함의하고 있었다면 방자전의 성춘향은 신분 상승과 사랑을 동시에 얻고 싶은 갈등을 담은 '인간'이라는 신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대상자로서 원전의 이몽룡은 당시 양반 자체

형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의리'라는 신화를 담고 있었던 반면에 방자전에서의 몽룡은 외모는 도련님이지만 내면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그 어떠한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출세'라는 신화가 내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자를 보면 원전에서의 방자는 외모도 전형적인 하인이고 감히 양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실'이라는 신화를 담고 있었지만 방자전에서의 방자는 외형부터 일반 하인을 벗어난 훈남적 매력에 사랑을 위해선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는 '의지'의 신화를 보여주었다.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그림1] 춘향전과 방자전 영화 포스터

조선시대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기반으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상하질서가 엄격한 사회적 규약에 의해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신분 질서의 순서대로만 발전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림1] 영화포스터들에서 오른쪽 작품은 이러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왼쪽 작품인 원전인 춘향전(Chunhyang, 2000년 제작, 임권택 감독)을 스펀오프<sup>1)</sup>한 '방자전(The Servant, 2010년 제작, 김대우 감독)'이다. 이 작품에서의 서술적 전제는 주인공인 방자의 지적 수준이나 외모적 매력도가 이몽룡을 능가한다는 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전과의 차이점이 작품의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을 토대로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시각적이지 이념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존의 영화, 드라마, 게임 따위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 또는 그런 작품 (네이버 용어 사전)

이 시도가 스펀오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헐리웃의 코믹북 영화화 트렌드에 우리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영화산업의 다양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바란다.

### 1.2. 연구대상 및 방법

두 작품의 비교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스펀오프된 작품인 방자전에서 방자와 이몽룡 그리고 성춘향의 삼각관계에 집중하여 이야기가 전개 되었기에 비교의 합리성을 위해 춘향전에서 이 3명에 국한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진행은 먼저 각 작품의 제목 인물을 주체자로 상정하고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에 적용하여 이들 이야기의 핵심 구조를 밝힌 후 주체와 그들이 추구하는 대상이나 결핍 요소를 알아본 다음 주체를 돕는 협조자와 그의 대상 획득을 방해하는 반대자를 구명하겠다. 다음 단계는 위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각 작품에서 삼각관계에 속한 인물들을 '표현이미지'와 '내용이미지'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와 신화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이들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실은 캐릭터는 이야기 구조를 가진 모든 콘텐츠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중추가 되고 이들에 대한 표현 결과들은 이미 사회 문화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은 시대의 사회적 가치 등과 같은 당시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 사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표출되는 이미지와 관념 안에 함의된 이데올로기를 추출하는 방법론으로 적절하다<sup>2)</sup>고 본다.

##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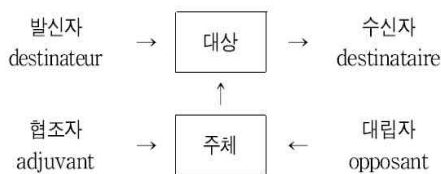
### 2.1. 그레마스(A. J. Greimas)의 행위소 모델

러시아 언어학자 프롭(Vladimir Propp)이 그의 연구에서 다양한 민담을 분석한 결과 밝혀낸 사회적 관계망의 31가지 유형을 기저로 총 6가지 대표 행위 주체를 통한 통사론적 모형을 제안한 것이 행동자 모델(modele actantiel)이다.<sup>3)</sup> 이것은 다양한 텍스트 전반에 표출되는

2) 민혜남, 캐릭터 디자인의 기호학적 신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0. p.181.

3) A. 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D. Mc Dowell, R. Schleifer and A. Velie tran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행위소(또는 행위자)들의 각자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 해당 텍스트가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sup>4)</sup> 이 이론에서 주어는 ‘행동 주체자’이고 목적어는 ‘행동의 대상’을 말하며 이 주체와 대상은 결국 프롭의 연구 대상들 중 ‘주인공’과 ‘찾는 인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행동자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체의 핵심인 주체(Subject)와 그 대상인 객체(Object)가 된다. 동서고금의 대부분 이야기들은 어떠한 대상을 득하고자 하는 주체의 니즈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때 주체와 대상의 중심축은 대부분 욕망이거나 혹은 추구가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체는 추구하는 어떤 대상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상을 주는 자를 ‘발신자’ 받는 자를 ‘수신자’라고 하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축을 ‘전달’의 축이라 말한다. 때에 따라서 발신자 또는 수령자는 주체와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축은 ‘협조자’와 ‘대립자’인데 위에서 언급한 협조자는 수신자가 추구 대상의 획득에 도움을 주는 자이지만 이 대립자는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을 득하는데 방해하는 인물로서 이 둘을 대칭하는 축은 ‘능력’이 핵심이 된다.<sup>5)</sup>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2]이다.



[그림2] 행위소 모델

이 이론은 사건과 정황 그리고 행위소의 배경 등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이며 또한 해당 사건의 주체를 누구의 시각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얻어지기도 한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중 하나인 원작과 스펀오프된 작품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사를 고찰하는 인문 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인

ska Press. 1983, pp.197-221

4) Greimas 저,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p.385

5)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p.155-156

인 전제<sup>6)</sup>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행위소 모델 이론은 아주 적절하고 볼 수 있다.

## 2.2. 롤랑바르트의 신화론

언어학자 롤랑 바르트는 연구 대상들을 ‘의미구조 모형’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 형식과 신화적 의미 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의 외형으로부터 그 내면까지의 표현방식을 통해 대상의 공시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론이다.<sup>7)</sup> 이러한 과정으로 획득하게 된 공시성은 하나의 관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sup>8)</sup> 바르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해당 대상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효용성과 그에 따른 표현 내면을 연구하였다.<sup>9)</sup> 이러한 시도의 핵심에는 영화상에서 캐릭터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캐릭터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추임으로 직간접적으로 기획자가 의도한 바를 수행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인 것이다. 특히 이들의 외형은 사회적이자 문화적 가치를 함의한 퍼스낼러티(personality)<sup>10)</sup>라는 전체하에 진행하였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언어학자 엘름스로우는 기호를 표현(expression) 측면과 내용(content)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레비스트로스 역시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s) 차원에서 표현과 내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표현 측면' 과 '내용 측면'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양자가 동시에 표현됨으로서 이들이 서로 결합됨을 증명했다.<sup>11)</sup> 이와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들을 ‘표현이미지’와 ‘내용이미지’로 분리하여 그 함의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호학적 분석에 있어 보다 주관적인 분석을 넘어 객관적인 근거를 좀 더 얻고자 하였다.”<sup>12)</sup> 본 연구는 바르트의 이러한 이론을 근

6) 조운한, “패러디광고의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38

7) 이견실, 광고 이데올로기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83.

8) 신항식,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문학과 경제사, 2003. p.68.

9) 신항식, 위의 책, 2003. pp.64~65.

10) 김운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기호학적 생성구조,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9.

11)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p.75.

거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내면에 있는 핵심 신화를 밝혀내겠다.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만든 신화구조 분석 도구가 아래 [표 1]이다. 부연하자면 기표 Sr은 특정한 대상을 말하며 기의 Sd는 그 대상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구체적 형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호는 기표와 기의가 통합된 내용을 말하며 결국 개념은 이 기호에 담겨진 은밀한 뜻을 말한다.

[표1] 롤랑 바르트 기호학적 체계로의 신화구조

신화 myth	기표 Sr 1. Signifiant	기의 Sd 2. Signifie	II. CONCEPT 개념
	3. Signe 기호 I. FORME 형식		
	III. SIGNIFICATION 의미 작용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신화는 [표1]과 같은 인지 구조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은밀한 의도가 되는 것이다. 언어학자 바르트는 “신문이나 잡지들의 기사, 복잡한 광고, 소설 등 폭넓은 문학 작품들과 담론들 그리고 영화, 상업 사진, 다양한 쇼, 심지어는 뉴스조차도 대화체의 담론들이 이러한 은밀한 신화들과 연결되어 있다.<sup>13)</sup>”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언어학자 바르트는 현대적 의미의 신화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문화적 현상들에 숨어 있으며 결국 이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이것이 신화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4)</sup>” 그래서 본 작품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론으로 이는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3. 분석

#### 3.1.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행위소 모델에 춘향전을 대입해보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행위 주체는 영화 제목대로 성춘향이고 그녀가 추구하는 대상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협조자는 뽕덕어멈과 향단이며 주체자에 가장 강력한 대립자는 변학도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주체인

12) 민혜남, 캐릭터 디자인의 기호학적 신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0. p.90.

13)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2004. p.190.

14)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261.

춘향이가 최종 목표인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든 발신자는 이몽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얻게 된 사랑의 수신자는 결국 성춘향이었다. 원전의 대부분 인물들은 당시 시대의 전형성과 평면적 인물의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성춘향은 한 남자만을 섬겨야 하는 지조와 절개의 함의를 담고 있었고 이몽룡은 비록 양반이지만 남자의 의리를 보여주는 당시 이상적인 남성상을 그리고 변학도와 뽕덕어멈 그리고 향단이는 각각 악인과 기생 그리고 그녀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3]이다.



[그림3] 춘향전의 행위소 모델

#### 3.1.1. 주동자: 성춘향



[그림4] 성춘향

[그림4] 성춘향은 작품에서 비록 천한 기생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인 뽕덕의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향단이라는 하녀도 거느리는 여염 양반집 규수와 같은 삶을 살아 왔다.

[표2] 성춘향 표현이미지

성춘향 표현 이미지	1. Sr	2. Sr	II. Sd
	젊은 여자	단아	
	I. Sr		정숙
	마치 양가집 규수의 모습을 함		
	myth		
아씨			

[표3] 성춘향 내용이미지

성춘향 내용 이미지	1. Sr	2. Sr	
	순진한 마음을 가진 여자	순수	
	I. Sr		II. Sd
	지아비는 평생 한 명만 섬겨야 함		정절
	myth		
지조			

그녀는 16살 무렵 뺨덕의 치밀한 준비 하에 당시 권력자의 자제인 이몽룡과의 합방을 목인한다. 춘향이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으나 당시 일부종사라는 이념을 고통으로 참고 이겨내며 결국 정실 부인된다. 그녀의 표현이미지는 항상 단아하고 정숙하여 마치 양가집 규수의 형상을 가진 ‘아씨’였고 내용이미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젊은 여자로서 정절을 바탕으로 지아비는 평생 한 명만 섬겨야 한다는 ‘지조’를 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2] [표3]이다. 결국 성춘향 캐릭터는 양가집 규수의 미모에 일부종사라는 함의가 담긴 ‘사랑’의 신화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았다.

3.1.2. 대상자: 이몽룡



[그림5] 이몽룡

[그림5] 이몽룡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같이 이성의 내면을 서서히 알아가기 보다는 미모에 먼저 반한 순진한 양반집 자제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는 어린 마음에 춘향이의 외모에 혹해 뺨덕의 뜻에 제대로 걸린 상황이었다.

[표4] 이몽룡 표현이미지

이몽룡 표현 이미지	1. Sr	2. Sr	
	잘생긴 젊은 남성	호감	
	I. Sr		II. Sd
	항상 단정한 부잣집 양반 자녀의 모습		부유
	myth		
도련님			

[표5] 이몽룡 내용이미지

이몽룡 내용 이미지	1. Sr	2. Sr	
	자신이 한 말은 지킴	책임	
	I. Sr		II. Sd
	남녀 사이에도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 있음		약조
	myth		
도리			

그러나 결국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한양으로 가서 학문에만 매진하여 장원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된다. 그의 감찰지역이 남원인 것은 우연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과거 소년시절 사랑의 추억이 남아 있는 곳에서 정인인 춘향이를 다시 만나 그녀의 정절에 감동하여 비록 성인이지만 자신의 부모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춘향이를 자신의 천생배필로 온 마을에 공표한다. 그의 표현이미지는 잘생긴 젊은 남성으로 항상 단정한 부잣집 양반 자녀의 모습을 한 ‘도련님’ 이었고 내용이미지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약속에 대해 남녀 사이에도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 있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도리’였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4] [표5]이다. 결국 이몽룡 캐릭터는 호감이 가는 부유한 외모에 자신이 한 약조는 반드시 지키는 ‘의리’의 신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3. 주변자: 방자



[그림6] 방자

[그림6] 방자는 이 작품에서 전형적인 하인의 모습으로 나온다. 지적 수준도 정확히 자신의 신분에 맞춰져 있다. 이몽룡과의 대화 분위기로 유추해보면 이도령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인으로서 이도령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꾸준히 혼자 궁시렁거리며 그에게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허나

그는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이러한 설정은 우리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인 해학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방자와 춘향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투를 보면 반말이다. 이게 춘향이가 당시 처해 있는 신분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표현이미지는 나이는 좀 있지만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항상 경박한 행동을 하는 ‘하인’이었고 내용이미지는 항상 불통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인물인 ‘단순’을 담고 있었다.

[표6] 방자 표현이미지

방자 표현 이미지	1. Sr	2. Sr	
	신분이 낮은 남성	학생	
	I. Sr		II. Sd
	나이는 좀 있지만 자신의 신분에 맞는 경박한 행동을 함		아랫사람
myth			
하인			

[표7] 방자 내용이미지

방자 내용 이미지	1. Sr	2. Sr	
	소극적인 반항을 하는 인물	불통	
	I. Sr		II. Sd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인물		복종
myth			
단순			

이를 정리한 것이 [표6] [표7]이다. 결국 방자 캐릭터는 신분이 낮은 남성이고 가끔씩 소극적인 반항을 하지만 결국 신분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충실’의 신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2.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

행위소 모델에 방자전을 대입해보면 이 작품에서의 중요한 행위 주체는 영화 제목대로 방자였고 그가 추구하는 대상도 춘향전과 같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협조자는 마영감과 향단이였다. 특히 마영감은 원전에는 없는 인물로서 방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주체자에 가장 강력한 대립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몽룡이었다. 작품 후반에 방자는 그에게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변학도는

등장한다. 그러나 전체 맥락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이몽룡에게 이용을 당하고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나온다. 결국 이 작품에서 주체인 방자가 목표인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든 발신자는 성춘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득하게 된 이 사랑의 최종 수신자는 방자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7]이다.



[그림7] 방자전의 행위소 모델

#### 3.2.1. 주동자: 방자



[그림8] 방자

[그림8] 방자는 스핀오프된 영화의 주인공이자 원전과 비교하여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다. 그는 당시 신분사회에서 하인이 가지면 안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양반의 여인을 탐한 것이다. 물론 하인이라 하더라도 생각만은 자유지만 그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당시로서는 아주 위험한 성격의 캐릭터이다.

[표8] 방자 표현이미지

방자 표현 이미지	1. Sr	2. Sr	
	튼튼하고 잘생긴 남성	건장	
	I. Sr		II. Sd
	하인이지만 외모와 원력이 뛰어난 인물		호감
myth			
훈남			

[표9] 방자 내용이미지

방자 내용 이미지	1. Sr	2. Sr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	노력	
	I. Sr		II. Sd
	비록 하인이지만 남녀의 애정에는 양보가 없는 인물		열정
myth			
사랑			

그러나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타인(마영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수단도 있으며 부하(직원)들의 마음도 인정으로 사로 잡는 등 요컨대 뛰어난 CEO형 인물인 것이다. 그의 약점은 사랑에 있어서 만큼은 지나치게 순정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그에게는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위험 요소가 된다. 그의 표현이미지는 뛰어난 외모와 완력을 지닌 인물인 ‘훈남’이었고 내용이미지는 비록 하인이지만 남녀의 애정에는 양보가 없는 열정을 가진 결국 ‘사랑’을 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8] [표9]이다. 결국 방자 캐릭터는 하인이지만 외모와 완력이 출중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는 양보가 없는 ‘의지’의 신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1. 대상자: 성춘향



[그림9] 성춘향

[그림9] 성춘향은 이중인격이 의심되는 성격의 소유자다. 분명 방자의 남성적 매력과 마음에 흔들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인 뺨덕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이몽룡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려 했다. 점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방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점 등 범인으로서의 쉽지 않은 행동을 한다. 타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진심은 춘향이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녀는 분명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표10] 성춘향 표현이미지

성춘향 표현 이미지	1. Sr	2. Sr	
	세련되고 예쁜 여성	미녀	
	I. Sr		II. Sd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여성		매력
myth			
절색			

[표11] 성춘향 내용이미지

성춘향 내용 이미지	1. Sr	2. Sr	
	예쁘고 똑똑한 여성	욕심	
	I. Sr		II. Sd
	사랑과 신분 상승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는 여성		양다리
myth			
갈등			

그녀의 표현이미지는 자신의 매력을 알고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절색’이었고 내용이미지는 사랑과 신분 상승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는 여성인 ‘갈등’을 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0] [표11]이다. 결국 성춘향 캐릭터는 자신의 외모의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이자 사랑과 성공의 선택에서 고민을 하는 어찌보면 현대의 보통 사람들의 속마음을 표현한 캐릭터인 ‘인간’의 신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3. 주변자: 이몽룡



[그림10] 이몽룡

[그림10] 이몽룡은 방자전에서 원작의 어리고 순수함을 간직한 양반집 도련님이 아닌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악행도 저지르는 심성과 이를 이루기 위해 치밀함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그는 애초에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다. 춘향에 대한 마음도 철저히 육체적 욕망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표12] 이몽룡 표현이미지

이몽룡 표현 이미지	1. Sr	2. Sr	
	준수한 양반 자 식의 모습	고급	
	I. Sr		II. Sd
	세련된 복장을 한 부잣집 양반 자식		화려
myth			
도련님			

[표13] 이몽룡 내용이미지

이몽룡 내용 이미지	1. Sr	2. Sr	
	남들과는 다른 남성	독특	
	I. Sr		II. Sd
	목표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는 인물		이기
myth			
성공			

그러나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 때에 따라서는 적과의 연대도 불사할 만큼 뛰어난 인내의 소유자다. 작품 후반에는 자신이 목표를 이루자 주변 인물들에게 토사구팽을 행하는 잔인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의 표현이미지는 세련된 복장을 한 부잣집 양반 자제인 ‘도련님’이었고 내용이미지는 목표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인 ‘성공’을 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2] [표13]이다. 결국 이몽룡 캐릭터는 외모는 준수한 양반 자제의 모습이나 내면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기의 극치를 보여준 ‘출세’의 신화가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결 론

본 연구는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핵심 구조와 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작품 캐릭터들의 함의와 신화를 밝힌 다음 최종적으로 이들 상호 간의 대응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작품을 행위소 모델에 대입한 결과 주체의 대상은 동일하게 ‘사랑’이었다. 비록 두 작품의 수신자가 춘향기와 방자로 달랐지만 이들의 사랑에 대한 열정은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두 작품은 사랑을 얻기 위해 연인들 서로가 시련을 이겨내고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한쪽의 지순한 열정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완성된

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두 작품의 캐릭터들을 분석한 결과는 원전에서 주동자로서 성춘향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듯 일부종사를 따르는 ‘사랑’ 신화를 함의하고 있었다면 방자전의 성춘향은 자신의 외모를 통해 출세와 사랑을 다 얻고 싶은 현대인들의 속마음을 담은 ‘인간’이라는 신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대상자로서 원전의 이몽룡은 양반 자제의 전형성을 보여주었고 당시에 바람직하다고 믿었던 ‘의리’라는 신화를 담고 있었던 반면에 방자전에서의 이몽룡은 외모는 도련님이지만 내면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그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출세’라는 신화가 내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변자를 보면 원전에서의 방자는 외모도 전형적인 하인이고 감히 양반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실’이라는 신화를 담고 있었지만 방자전에서의 방자는 외형부터 일반 하인을 벗어난 훈남적 매력에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는 결국 ‘의지’의 신화를 보여주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14]이다.

[표14] 등장인물의 캐릭터 비교 분석

등장 인물	춘향전		인물 의 유형	방자전	
	표현 내용	신화		등장 인물	표현 내용
성춘향	아씨 지조	사랑	주동 자	방자	훈남 사랑 의지
이몽룡	도련님 도리	의리	대상 자	성춘향	절색 갈등 인간
방자	하인 단순	충실	주변 자	이몽룡	도련님 성공 출세

이 두 작품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자라는 캐릭터의 파격적 변신이었다. 원전에서는 소극적인 저항밖에 못했던 방자가 스펀오프된 방자전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록 상대가 양반이지만 위협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거의 저항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러나 그는 이 작품에서도 사회 변혁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와의 타협으로 마무리 한다.

고전 소설의 인물들은 전형성의 표출과 평면적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인간은 고전 작품의 그들처럼 한가지 성격

요소만 있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를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 방자전에서의 성춘향이다. 내용상 그녀가 방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욕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장애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동서고금을 통한 진리인 화의 근원은 역시 욕심 이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영화 춘향전과 스피오프된 방자전 속에서의 성춘향과 이몽룡 그리고 방자 간의 삼각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등장인물들을 전부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향단이와 변학도 캐릭터 또한 파격적인 변신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다. 끝으로 본 논제 외에도 다양한 고전작품들과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 콘텐츠만의 자산을 디자이너 관점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재해석 하는 연구에 본 논문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성도. (2003) 구조에서 감성으로, 서울, 고려대출판사
- 김윤배. (2003)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기호학적 생성구조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혜남. (2010) 캐릭터 디자인의 기호학적 신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철. (2003) 파리학과 기호학, 서울, 민음사
- 백선기. (2001)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항식. (2003)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서울, 문학과 경제사
- 이견실. (2005) 광고 이데올로기의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운한. (2009) 패러디 광고의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 J. Greimas. (1983) Structural Semantics: An attempt at a method(D.McDowell, R. Schleifer and A. Velie tran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Greimas 저, 김성도 역 (1997) 의미에 관하여, 서울, 인간사랑

